

예외상태 속 미망인의 욕망 서사와 『세기의 종』

김 주 리*

요약

정비석의 『세기의 종』은 1950년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라 할 수 있는, 한국전쟁기 예외상태 속 납치/월북미망인의 생존과 욕망, 윤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고는 납치/월북 미망인의 운명을 중심으로 여성의 욕망과 그 발현방식이 가진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월북미망인 안혜옥은 유혹하는 여성으로서 엔조이의 논리로 가부장제 사회의 모순을 고발한다. 그녀는 자유로운 유혹을 통해 남성의 모순되고 저열한 욕망을 조롱하고 처벌하며 가부장제 사회의 질서를 전복하는 매저키즘을 구현한다. 안혜옥과 달리 납치미망인 민영심은 표면에서 교양과 윤리를 강조하지만, 이면에서 가부장제의 금기에 대한 위반 욕망을 광기와 히스테리로 표출한다. 그녀는 폭력적으로 남성의 육체를 점령하고 가부장제 규율을 파괴하는 음험한 향락, 주이상스를 구현한다. 파잉된 욕망과 자유로운 유혹으로 가부장제 사회의 윤리와 질서를 위반하고 비판하는 여성의 모습은 50년대 중반 이후 정비석의 소설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상실해간다. 『세기의 종』은 전쟁기 예외상태의 현실 속 법질서나 윤리 너머의 여성적 욕망과 자유를 투영한 소설이라 할 것이다.

주제어: 정비석, 『세기의 종』, 매저키즘, 히스테리, 주이상스, 예외상태

목차

1. 서론
2. 유혹자 여성의 조롱과 매저키즘
3. 미망인의 주이상스와 폭력
4. 결론을 대신하여

*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1. 서론

정비석의 『세기의 종』은 1953년 1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영남일보』에 연재된 소설이다.¹⁾ 이 소설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가족 이산과 미망인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1950년대 후반 『유혹의 강』(1958)과 유사하되 완전히 다른 서사적 결말을 보이기에, 전쟁기와 전후시기 미망인의 육체와 욕망, 운명을 둘러싼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한국전쟁 상황 속 갑작스런 남편의 사망, 납치, 월북으로 인해 생겨난 다양한 연령과 상황의 미망인들은 고아, 상이군인과 함께 1950년대 초반의 시대적 상흔을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세기의 종』은 아직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서울이라는 특수공간, 즉 재건과 전시가 함께 존재하는 예외적 세계를 다루면서 중석광 사건이나 전시 입대문제 등의 현실을 서사에 투영하는 동시에 납치/월북 미망인이라는 예외상태의 주인공, 즉 미망인으로 불리지만 남편이 죽은 것은 아닌 경계에 선 존재를 내세워 대중소설로서의 흥미를 자아낸다. 예외상태란 전쟁이나 혁명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시입법이나 계엄령 선포 등 법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태, 정상적인 법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창출된 법적 아노미 공간을 지칭하는 말이다.²⁾ 『세기의 종』은 한편에서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1) 『세기의 종』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텍스트 중 하나이다. 정비석의 1950년대 대중소설 연구는 『자유부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민주어족』이나 『유혹의 강』, 『슬픈 목가』 등이 언급될 뿐이다. 『세기의 종』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전쟁기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가부장제 의식에 의한 희생양으로 전쟁미망인의 운명을 그린다는 평가가 이루어진 연구(이상화, 『전쟁기의 여성 젠더 의식-정비석의 『세기의 종』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6, 대중서사학회, 2011), 『여성전선』과 함께 직업여성의 서사를 다룬 것으로 평가하는 연구(나보령, 『1950년대 ‘직업여성’ 담론을 통해 본 여성들의 일과 결혼』, 『한국문학과 예술』 23, 숭실대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7)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비석 소설 전반을 다루며 짧게 언급될 뿐이다. 대표적으로 『세기의 종』을 비롯한 1950년대 정비석 소설이 생산과 소비 영역을 분리시키고 여성을 후자에 국한시켜 여성혐오를 정당화한다고 언급하는 연구(허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 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2015)가 있다.

전시를 배경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환도, 재건본부 설치 등 전후 기획들이 솟아오르는 1953년 초 서울과 부산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그 속에서 자신의 신체자율권을 박탈당하거나 침해당하는 존재들의 서사를 보여준다.³⁾

소설은 기성의 윤리를 조롱하고 남성의 욕망을 조종하는 월북미망인 안혜옥의 결혼과, 기성의 윤리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그에 얽매인 채 성욕으로 고통받는 납치미망인 민영심의 죽음을 서사화한다. 월북미망인과 납치미망인이라는 (남편이 죽지 않았기에 미망인이라 불리기 어려운) 특수한 존재를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⁴⁾ 이 소설은 누구나 점령할 수 있게 아무도 그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별거벗은 생명, 호모 사케르로서 전쟁미망인을 형상화한다. 호모 사케르란 정상사회(현실 가부장제의 규율)에서 배제된 동시에 포섭된 존재들로서, 법적, 윤리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추방된 존재이다.⁵⁾ 월북/납치미망인으로서 그들은 남편이 있지만 동

2) 정상적인 법치의 유예상태를 의미하는 예외상태 개념에 대해 아감벤은 이를 '민주주의와 절대주의 사이의 확정 불가능한 문턱'으로 간주하며, 현대 사회에서 예외상태가 상시화했다고 진단한다. 비상상태, 계엄령 등 주권 권력에 의해 창출된 법적 아노미 공간인 예외상태 안에서 정상적인 법집행은 효력 정지되지만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법은 보다 강력한 규범적 효력을 유지한다. 조르조 아감벤, 김항 역, 『예외상태』, 새물결, 2009, 16-79면 참고.

3) 한국전쟁 발발 직후 선포된 비상사태나 한국전쟁에 관한 유엔의 결정이나 개입은 예외상태적 성격을 갖는다.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194-196면.

4) 1950년대 미망인은 남편이 죽은 경우뿐 아니라 월북하거나 납치된 경우까지 포함한다. 기존 연구에서 미망인 표상 분석을 위해 주로 논의되는 작품은 염상섭의 『미망인』, 『화관』 연작과 정비석의 『유혹의 강』, 박경리의 『표류도』이다. 이들 작품에 나타난 미망인의 표상은 '탕녀'와 '가장' 사이에서 흔들리며(정보람, 「탕녀와 가장-1950년대 전쟁미망인의 이중적 표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여성 홀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상황에서의 성적 자율성과 독립성이 옹호되거나(김태진, 「전후의 풍속과 전쟁미망인의 서사 재현 양상」, 『현대소설연구』 2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 서재원, 「박경리 초기 소설의 여성 가장 연구-전쟁미망인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욕망을 둘러싸고 재건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 가운데 처벌당하며(김은하, 「전후 국가근대화와의 위험한 미망인의 문화정치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9,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히스테리를 통해 저항하거나(허윤, 「한국 전쟁과 히스테리의 전유」, 『여성문학연구』 2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새로운 윤리질서의 변화를 내포하는(정보람, 「전쟁의 시대, 생존의지의 문학적 체현」, 『현대소설연구』 49,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것으로 평가된다.

시에 없는 자로서, 남성들이 언제든 유혹, 강간할 수 있지만 그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는 존재들이다.⁶⁾ 소설에서 미망인은 “과부 바람 나기 예산데, 바람을 좀 내기루 어땡수? 그것두 다 자선사업이라는”⁷⁾ 혐오발언의 대상이 되며, 안혜옥과 민영심의 육체를 둘러싸고 한양종합병원 총무과장 남재호와 토건업자 이상태 등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욕망을 전시한다.⁸⁾

『세기의 종』은 누구나 점령할 수 있되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특수)미망인의 육체와 욕망을 서사화하며, 기성 윤리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바탕으로 두 여성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형상화한다. 본고는 납치/월북 미망인의 운명을 중심으로 두 주인공의 욕망과 그 발현방식이 가진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쟁이라는 예외상태의 현실 속 가부장제 윤리와 규율에 대한 여성의 저항과, 죽음에까지 이르는 여성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의미 매김하려는 것이다. 여러 남성들을 유혹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욕망을 향유하는 안혜옥과 광기 어린 욕망의 발현 끝에 죽음에 이르는 민영심의 운명을 여성의 욕망에 대한 가부장제의 처벌로 간주하기보다, 음험한 욕망의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발현을 통해 가부장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저항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5) 호모 사케르란 이중으로 배제된 존재, 즉 희생물로 바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그를 죽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적 질서와 세속적 법질서로부터 모두 배제된 존재이다.

조르주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참고.

6) 호모 사케르는 공동체로부터 배제되기는 하지만, 언제나 주권자의 명령 아래 복속되어 있어야 하는 추방의 관계에 진입한다. 호모 사케르란 추방된 삶, 죽음의 위협과 폭력에 노출된 삶이다. 양창렬, 「생명권력인가 생명정치적 주권권력인가」, 『문학과사회』 19권 3호, 2006, 246면

7) 정비석, 『세기의 종』, 세문사, 1954, 84면. 이 논문에서 『세기의 종』에 대한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이후에는 인용면수만 밝힘.

8)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기존 연구에서 여성혐오를 정당화한 텍스트로 설명되기도 했다. 이러한 해명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세기의 종』에 나타난 여성의 욕망, 특히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미망인의 욕망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유혹자 여성의 조롱과 매저키즘

『세기의 중』은 아직 휴전선 인근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환도도 되지 않았으나 유엔의 결정으로 도시 재건이 시작되기에 사업가를 자칭하는 남성 브로커들이 으리으리한 간판을 내걸고 각종 이권을 둘러싼 사기와 협잡을 벌이는 전쟁기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

물론 주식회사로서의 법적 수속도 밟지 않았다. 마침 서울에 올라온 그날, 「유엔은 전세(戰勢) 여하를 막론하고 부산에 한국 재건본부를 설치하고, 한국 재건을 적극적으로 추진 시킨다」는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었기에, 이상태는 그 기사를 보자 그날로 두개의 새로운 간판을 내걸었음 뿐이었다. 재건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시키자면 목재가 많이 필요할 것이요, 토건사업도 왕성해지리라 싶어, 위선 간판만이라도 걸어놓고 좋은 세월을 기다려 보자는 속셈이었다.(63-64)

정부보다 한발 앞서 서울로 돌아와 종로에 무역회사, 목재회사, 토건회사의 간판을 걸고 온갖 브로커 행위로 돈을 버는 이상태의 면모는 50년대 초 갖은 속임수와 도둑질, 협잡과 부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현실을 투영한다. 유엔이 한국재건을 추진시키려 한다는 기사에 ‘법적 수속도 밟지 않’은 채 발빠르게 재건회사와 목재회사의 (거짓) 간판부터 붙이고, 일선장병 위로를 명목으로 후원금을 걷어서는 물품업자와 짜고 돈을 가로채거나 고급장교를 유인해 휴전선 인근의 별목 허가를 얻으려 하는 등 각종 사기와 부정으로 부를 쌓아가는 그는 50년대 한국사회에서 부정한 기업가의 면모를 대변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부정성을 보이는 또다른 존재는 한양종합병원 총무과장 남재호이다. 장부를 조작해 매달 불로소득을 착복해 온 남재호는 애정관계를 맺은 간호부 허정자를 이용해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의사들의 동향을 파악

하고 모든 문제를 민영심의 육체를 이용해 해결하려 한다. 정상적인 법질서가 중단된 법적 아노미 상태(예외상태) 속에서 이상태나 남재호 등 브로커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예외상태 속 역설적으로 강화되는 법의 규범적 효력을 동원해 추구한다. 자신들의 행동에 반발하는 청년 의사들을 빨갱이로 몰아부치거나, 일선장병 위로의 간판을 걸어 후원금을 강탈하고, 병역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통제권력을 휘두르며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김명세? 그놈이 빨갱이줄은 몰랐는걸!』

남재호는 대뜸 그렇게 말하였다.(중략)

『어마! 병원시설과 중업원 대우를 개선하라는 것이 빨갱이 사상일까요?』

『물론이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현실에 불평을 품는 사상은 모두다 빨갱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지!』(124)

남재호는 자신의 경영에 반기를 드는 의사들을 사상 문제와 병역문제로 억압하고 회유한다. 그는 자신에게 반항하는 젊은 의사들을 빨갱이로 몰아부치며 전쟁이란 예외상태의 현실 속 강화된 규범으로서 사상 검열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휘두른다. ‘지금 현실에 불평을 품는 사상은 모두다 빨갱이’라는 남재호의 논리는 정상적인 법질서가 유예된 예외상태이기에 오히려 빨갱이라는 사상검열이 과도하게 강화되어 모든 존재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현실을 투영한 것이다.⁹⁾ 또한 젊은 남성 대부분이 징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젊은 의사들을 맘대로 주무르자면 무엇보다도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이 긴요한 일이지”(267) 그는 그들의 병

9) “남을 간단히 매장하는 데는 그 이상 좋은 수단이 없”(124-125)는 빨갱이 매도는 당대의 다양한 정치 상황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서술자는 공박한다. “팔일오 해방후로, 더구나 육이오 이후로 얼마나 많은 정의파(正義派)의 인사들이 빨갱이라는 누명으로 공시간에 억울한 핍박을 당해 왔던가?”(125)

역문제, 징집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거짓 문건을 게시한다. 이처럼 예외상태 속 역설적으로 강화되는 규범적 효력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소설 속 남성 브로커들은 1950년대 초 정치 질서의 폭력성을 노출해 보인다.

『세기의 종』은 이러한 부정적인 남성의 세계, 법 질서가 아니라 브로커의 협잡이 횡행하는 전쟁 중 재건의 예외상태 가운데 미망인의 생존과 욕망, 윤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설은 두 특수미망인의 만남, 즉 ‘한양종합병원’ 산부인과 과장 민영심에게 낙태를 의뢰하러 찾아온 안혜옥의 만남으로 시작된다. 슬픔과 애수의 표정을 전시하는 납치미망인 민영심과 달리 율복미망인 안혜옥은 “놀랍도록 총명한 인상”(10)과 “당돌한 태도”(11)를 가진 젊은 여성이다. 그녀는 낙태를 요구하면서도 “조금도 꺼리끼는 일 없이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권리가거나 한 것처럼 대담무쌍하게 부탁하는”(12) 태도를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중략) 어머니가 죽지 않기 위해 유산시키는건 팬찮고 어머니가 불행하지 않기 위해 유산시키는건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모순이에요. 죽어서 세상을 잊어 버린 사람보다는 살아서 불행에 허덕이는 사람이 더 비참하니까요』(17)

안혜옥은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는 낙태를 죄악시해서는 안될 뿐더러 헤어진 남편 또는 애인에게 미련이나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적극성을 보인다. 그녀에게 임신중절수술이란 이상이 맞지 않는 (사실혼 관계) 남편과의 결별, “이로써 공산주의자였던 남편과의 인연은 완전히 청산된”(131) 수월한 선택일 따름이다. “일년에 몇 세기의 속도로 변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십년이나 오십년 전의 도덕과 법률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은, 무리예요. 그런 법률을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해요.”(18)라는 안혜옥의 항변은 여성의 육체를 둘러싼 법 질서나 도덕의 규율에 대한

비판적 울림을 자아낸다. 그는 낙태를 둘러싼 법 질서나 기존 윤리를 조롱하며 여성의 행복이나 욕망을 법이나 윤리 이전에 강조한다. 법질서가 작용하지 않는 예외상태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나도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사정이 딱한 분이라도 인공유산만은 안시키기로 하고 있”(18)다는, 모성의 옹호라는 가부장제 윤리와 낙태금지법을 주장하는 민영심과 달리 그녀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질서 너머에서 자신의 욕망과 행복을 추구한다.

다행히 취직은 예약 되어있지만, 여자 혼자 살아나가자면 유혹이 많은 것은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았다. 경제적 토대 없이 자립해 가려는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의 유혹이 필요하기도 하였다. 유혹을 교묘히 이용하면 돈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131-132)

전쟁기의 현실에서 홀로 생활을 영위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안혜옥은 이상태와 남재호 등 당대 브로커 남성의 속물적인 욕망이나 부정적 행각에 대응해 그들을 유혹함으로써 조롱하고 처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상태와 남재호 등 브로커 남성들은 민영심과 허정자의 육체를 자신들의 사기협잡에 동원하며 희생양으로 만들지만, 안혜옥의 경우는 오히려 남성들을 자신의 유혹으로 조롱하고 속이는 등 ‘애정의 사기사’를 연출하는 것이다. 그녀는 “필요도 없는 여자비서를 채용한 목적이, 간간히 이런 향락이라도 누리자는데 있는 만큼, 최후의 일선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당히 싸-비스를 하려는 생각”(242)으로 이상태에게 아양을 떨고 월급과 품위유지비를 받아 생활해간다. 미망인으로 혼자 살아가는 여성에게 유혹이 많음을 인정하면서 그녀는 욕망이나 유혹을 고통스럽게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 매혹을 교묘히 이용해 생활비를 얻는다. 그녀는 여성의 육체를 소비하는 남성 사회에서 피해자가 되기보다 유혹자로서 오히려 남성의 욕망을 조롱하는 위치에 선다.

영문과 졸업생이지만 안혜옥은, 한국전쟁기 후방 부산을 배경으로 다양한 여성의 운명을 서사화하는 정비석의 『여성전선』(1951) 속 주인공 윤옥란과 같이 영문 타이핑에 능하고 “비서에 영문통역을 겸한”¹⁰⁾ 유능함을 전시하지 않는다. 『여성전선』의 배경이 되는 무역회사 지미양행이 전무 현준식의 경영능력이 발휘되는 긍정적인 세계를 구성하기에 윤옥란 역시 여비서로서 전문역량을 펼칠 수 있다면, 『세기의 종』의 배경이 되는 신한목재나 신한토건주식회사는 이상태의 브로커 행각, 사기행각을 위한 가짜이기에 여비서로서 안혜옥의 역할 또한 사장의 비위를 맞추고 그의 유혹에 적당히 응하며 미모와 애교를 발휘하는 데 불과하다.¹¹⁾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애교로 이상태와 남재호 등 남성의 욕망을 조종해 돈과 값비싼 선물을 받는 동시에 그들의 저열한 욕망을 조롱한다. 남성의 욕망을 간파하고 그에 순응하는 척 유혹의 포즈만 취하고 조롱하면서 ‘최후의 일선’으로 육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냥미인이라기 보다도, 어딘가 면도칼처럼 예리하면서도 요부처럼 요기로워 보이”(81)는 안혜옥은 유혹하는 여성으로서 남성 욕망을 처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안혜옥의 면모는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 규율에 매질을 가하고 조롱하고 파괴하는 매저키즘 관계의 지배자 여성과 유사하다. 들뢰즈는 매저키즘 관계에서 지배자 여성의 피지배자 남성에 대한 매질을 통해 가부장제 사회 속 규율과 질서의 전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매저키즘 관계에서 지배자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는 동시에 조롱하고 가부장제 윤리와 질서에 처벌을 가하는 존재이다.¹²⁾ 안혜옥은 기성의 윤리나 법질서에 따

10) 정비석, 『여성전선』, 한국출판사, 1952, 9면.

11) 1950년대 정비석의 장편소설 속 대학 졸업생으로서 건전한 직업여성의 윤리를 구현하는 또다른 인물로는 1954년에 발표된 〈민주어족〉 속 강영란이 있다. 강영란이 근무하는 ‘민생알미늄주식회사’가 공학자인 사장 박재하를 중심으로 전후 재건사회의 생산기술자립을 목표로 한 작업장이라는 점에서 젊은 여성의 업무 능력 역시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주리, 「1950년대 혐오의 서사와 헤테로토피아의 기획-정비석의 〈민주어족〉 고찰」, 『인문논총』 78,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참고.

르지 않고 유혹을 구사하며 남성에게 쾌락을 주는 듯하지만 육체적 접촉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남성을 속이고 조롱하며 처벌을 수행한다. 표면에서 그녀는 요부적인 방탕함의 가면을 쓴다. 남성들은 “돈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지꺼리던 말을 들었기에, 돈만 쓰면 안혜옥을 문제없이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310)해 비싼 대가를 치르지만 결코 그 육체에 접근하지 못한다.

안혜옥은 저도 모르게 실소(失笑)하였다. 이상태 자신은 그래도 자기판에는 일류 실업가요, 대회사의 사장이랍시고, 밖에 나가서는 경제가 어떠한 문화가 어떠한하고 떠들어대던 생각을 하면, 웃으워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132-133)

농담인지 진담인지 혜옥은 아주 명랑하였다.

남재호는 얼굴이 화끈 달았다. 자기판에는 여자들에게 아직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까지 퇴물취급을 당하기는 처음이었다.(460)

소설에서 안혜옥은 이상태와 남재호 같은 (부정적인) 가부장을 조롱하고 속이고 처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녀는 그들의 경박함과 노골적인 유혹을 비웃으면서도 표면으로는 그에게 존경을 표하는 척, 그에게 유혹을 당하는 척하며 그의 욕망을 조종하고 최후의 선에 이르러서는 속임수를 구사해 그의 기대를 무너뜨리거나 ‘퇴물취급’하며 조롱함으로써 욕망에 대한 처벌을 수행한다. “그러한 종이쪽지를 적어놓고 붙여붙여 요리집을 나와버렸다. 나중에 이상태가 방에 돌아와서 붉으락 푸르락 화 널 광경을 상상하고 혼자 후후후 재미나게 웃으면서.....”(246) ‘애정의 사기사’로서 안혜옥은 함께 출장 간 부산에서 이상태의 강간 시도에 힘으로 저항

12) 들뢰즈에 따르면 매저키즘적 관계란 유혹하는 ‘자궁의 이미지를 가진 어머니’와 매질하는 ‘외디푸스적 어머니’의 극단을 오가는 ‘구강적 어머니’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하는 계약이다. 매저키즘에서 지배자 여성(어머니)의 매질은 피해자 남성(아들)의 내부에 존재하는 아버지(가부장)의 모습을 처벌한다. 들뢰즈, 이강훈 역, 『매저키즘』, 인간사랑, 1996, 70-74면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생리를 꾸며 속여 넘긴다.

그러나 실상인즉 생리적 현상이란 새빨간 거짓 말이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런 방패를 하고 있는데 지내지 않았다. 이를테면 이상태가 『인생사기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안혜옥은 『애정사기사』였었다. 제 아무리 인생사기사라도 애정사기사에게는 어이없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408)

그녀는 이상태의 강간 시도가 있을 것을 예기하고 생리를 가장함으로써 속여넘긴다. 남성의 욕망을 능수능란하게 조종하고 속이면서 조롱하고 현명하게 물리치는 것으로 그녀는 법적 예외상태로서 전쟁기의 일상 가운데 여성의 행복을 찾아간다. “한번 결혼에 실패한 이후로는 어떤 유혹이라도 달갑게 받아가면서 인생을 유쾌하게만 살아갈 결심이었던 것이다.”(276) 법적 예외상태 가운데 남성 브로커들이 ‘인생사기사’로서 표면적인 위엄과 권리의 탈을 쓰고 부정한 협잡과 허황된 교환의 사기술을 펼쳐 나갈 때, 그녀는 ‘애정사기사’로서 그들의 저열함을 폭로하고 욕망을 처벌한다. 이러한 그녀의 행위는 당대 기성 가부장윤리에 대한 파괴이자 조롱으로, 그녀는 법질서와 윤리를 자유로이 위반하며 생활의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어쩌면!..... 사장님은 상당한 욕심쟁이시네요! 그런 사상은 너무 봉건적이세요. 남자들이 생활을 향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여자들에게도 생활을 엔조이 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허허허 그야 그렇겠지만!』

이상태는 대답을 어물어물해 버렸다.(390)

안혜옥은 엔조이의 논리로 가부장제 남성 논리의 모순을 고발하고 조

롱하며 비판한다. 남성들이 자신은 향락하면서 여성에게는 정조를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기에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에게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엔조이의 권리, 향락의 권리가 있음을 강변하는 것이다.¹³⁾ “결혼 하는건 언제든지 여자편에 손해예요.”(152)라는 인식 가운데 그녀는 가부장제의 규율이 여성에게만 가혹함을 비판하고 육체를 통한 유희와 향유를 긍정한다. 엔조이의 주체로서 그녀는 자신의 욕망에 당당하며 그를 통해 가부장제의 논리가 아니라 자신의 논리, 즉 여성의 행복을 위한 향락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유희자이자 처벌자로서 그녀는 남성들을 매혹하며, 월북 미망인의 처지나 “정신적인 매소부”(150)로서 여비서의 위험한 위치를 넘어 엔조이의 주체로서 보건부 공무원 배인곤과 결합한다. “배인곤은 잠자코 안혜옥을 쳐다 보았다. 안혜옥의 대담한 아름다움이 볼수록 마음에 끌려서, 문득 결혼하고 싶은 충동이 절실히 느껴졌다.”(151) 배인곤은 재회한 첫날부터 안혜옥의 솔직하고 현명한 인식과 대담함에 결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안혜옥의 결혼이나 낙태 이력은 그의 애정에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으며 안혜옥이 여비서로 손쉬운 유희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서 어떠한 불안도 느끼지 않는다. 안혜옥은 아무런 흥미 없는 사람에게 육체를 허락하지 않을 자신을 내보이며 배인곤의 청혼에 감지덕지하지도 않는다. “결혼은 아니하더라도 연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151)라는 말로 청년 배인곤과 자유롭게 욕망을 향유한다.

돈이 탐나는 마련해서는 이상태와 결혼하는 것이 제일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결혼문제를 엄숙히 생각해 보면, 이상태 같이 춤도 제대로 출줄 모르는 늙은이를 상대할 감정은 추호도 없었다. 좀 더 젊고, 춤도 세련된

13) 엔조이 논리로 남성을 조롱하는 여성상은 54년에 발표된 『민주어족』에도 발견된다. 『민주어족』에서 직업여성 장현옥은 “사람이란 자기 자신만 엔조이했으면, 결과는 아무래도 마찬가지로니까요!”(정비석, 『민주어족』, 정음사, 1955, 350면)라는 태도로 배영환의 욕망을 조롱하고 비판한다.

남성이라야만 할 것 같았다. (393-394)

여성 홀로 예외상태의 현실을 즐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녀는 돈 때문에 육체를 교환하는 자본의 논리에 따르지 않는다. 월북미망인으로서 전쟁기의 일상을 즐기며 유쾌하게 살아가려하는 그녀는 피해자가 되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거나 남성에게 희생되는 존재로 전락하지 않는다. 자신의 욕망, 엔조이의 권리를 최선에 놓으며 엔조이의 주체로서 그녀는 이상태의 자본이 아니라 배인곤의 젊음과 세련됨을 선택한다. 희생양이 아니라 향유자로서 그녀는 이상태, 배인곤, 남재호를 비롯한 온갖 남성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유혹에 적당히 대응하면서 주체적으로 엔조이의 권리를 누리는 가운데 남성의 모순되고 저열한 욕망을 조롱하고 처벌하며 가부장제 사회의 질서를 전복하는 것이다.

3. 미망인의 주이상스와 폭력

남치미망인 민영심은 “워낙이 아름다운 얼굴이기에 애수의 표정은 오히려 일종의 매력”(7)이라고 묘사되지만, 그녀의 애도가 지향하는 대상이 남편의 존재이기보다 남성의 육체라는 점에서 문제적인 여성이다. 안혜옥의 욕망이 예외상태의 현실 속 범질서 너머에서 남성을 유혹하고 조롱하고 처벌하는 매저키즘을 구현한다면, 민영심의 욕망은 예외상태의 현실이기에 더욱 윤리와 규율에 집착하며 과잉된 죄의식과 그에 상응하는 위반욕망과 폭력으로 구현된다. 남성을 유혹하고 조종하는 안혜옥의 욕망이 아니라 민영심의 죽음에 이르는 광기어린 욕망이 소설의 전면을 구성하는 데에는 예외상태의 현실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인식이 개진한다. 소설에서 남성브로커 남재호나 이상태는 전쟁 중 재건의 현실, 예외상태에서 오히려 강화되는 규범의 효력을 이용해 온갖 부당한 일을 벌인다. 이

러한 부정적 세태와 대비하여 윤리를 구현하는 존재로 교양 있는 미망인 민영심이 부각되는 것이다. 민영심은 “원래 여자의 이상적인 행복이란 부부와 모성애의 완전 일치에 있다”(19)고 간주하는 등 가부장제 윤리에 종속된 존재로서, 여성의 행복과 엔조이를 추구하는 안혜옥과 대비되지만 서사에서 그녀가 취하는 행위나 그녀의 위치가 안혜옥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¹⁴⁾

(이 여자는 정신적으로 어딘가 아브노-말한테가 있는 것이 아닐까?)(12)

사실 민영심은 혜옥의 이론에 반대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다만 반대할 감정이 생겼다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도덕적 관습에서 오는 새로운 윤리에 대한 일종의 반감에 불과하였다.(18)

안혜옥과 민영심은 전반부에서 가부장 윤리를 존중하는 (정상)여성과 이에 반기를 드는 ‘아브노-말한’ 여성처럼 그려진다. 민영심은 ‘지금까지의 도덕적 관습에서 오는 새로운 윤리에 대한 일종의 반감’ 때문에 안혜옥의 행동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서사의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그녀들의 차이는 무산된다. 그들은 똑같이 특수미망인-직업여성으로서 육체적 윤택함을 환기하고 남성 브로커 사이에서 교환되는 상품이다. 소설에서 민영심은 아버지가 세운 한양종합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이지만 유능한 의사가 아니라 중년 과부로서만 가치를 갖는 존재이다. 남재호나 이상태는 물론, 병원의 다른 간호사나 의사들은 그녀를 유능한 산부인과 의사가

14) 이상화는 민영심이 전통적인 여성상이 투영된 인물인 반면 안혜옥은 아프레겔의 면모를 반영한 인물이라고 본다. 또한 민영심이 가부장제의 모순을 극복한 주체적 여성 의식을 지니지 못하고 희생된다고 본다.(이상화, 앞의 논문, 211면, 223면) 이러한 대비나 지적에 동의하는 한편, 본고에서는 이러한 여성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윤리나 규율에 대한 저항의 측면에서 두 여성의 공통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영심의 죽음을 가부장제에 의한 희생으로 보기보다 죽음에까지 이르는 욕망 추구, 주이상스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라 과부의 위험한 육체로 바라본다. 미망인의 애수와 우울 가운데 압전한 여성 지식인을 연행하지만 사회는 그녀를 강한 금기로 제어할 뿐 윤리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민영심은 스스로를 “옛날의 애정과 의리에 구애 되어, 아직도 고독과 비애 속에서 울고 있는” “그만치 봉건적”(20)인 존재로 자리매김하면서 욕망을 규제한다. 여성의 자유와 행복을 옹아매는 기성 윤리와 법률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안혜옥과 달리 그에 직접적으로 반기를 들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윤리적인 의사, 정숙한 미망인의 자세를 취하지만 이면에서 그러한 윤리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윤리의 강박에 폭력적으로, 히스테리로서 저항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¹⁵⁾

민영심의 파멸과 죽음에는 사실상 아버지의 유지,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가부장제의 규율이 개입한다. “민영심여사가 한양종합병원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보려는 순정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남총무에게는 이용을 당하게 되고, 직원들간에는 본의 아닌 오해를 사게 된다면,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상 싶었다.”(163) 그녀의 모습은 착한 딸, 현숙한 아내라는 가부장제의 여성 규율을 내면화하는 이력으로 드러난다. 그녀는 십여년 전 “박기철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46)지만 “아버지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딸을 강제 결혼을 시켰기 때문”(47)에 “민영심도 결혼 시초에는 한동안 눈물로 지냈으나, 이내 모든 것을 단념하고 착한 아내가 되었던 것이다.”(47) 민영심에게 부여된 순종적인 딸, 착한 아내, 정숙한 미망인의 자리란 모두 남성 가부장의 명령과 규율에 따른 것이며 그녀는 아버지의 유

15) 히스테리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분열과 그 분열을 통해 드러나는 무의식적 욕망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히스테리 여성은 가부장적 현실 속에 들어가 아버지가 정해진 법을 따르면서도 법의 균열을 통해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자신의 욕망을 병리적 증상으로 드러낸다. 이명호, 「히스테리적 육체, 몸으로 글쓰기」, 『여성과 사회』 15, 한국여성연구소, 2004, 12면.

지를 받든다는 이유로 남재호에게 이용당하고 직원들에게도 배척된다. 그럼에도 민영심은 교양을 갖춘 지식인의 위치, 가부장제의 금기에 순응하는 윤리적인 여성 자아의 연행을 지속한다.

(현대사람들은 왜 그다지도 진실하지를 못 할까?)

실업가는 권모 술책을 위주하고, 가정부인들은 인공유산을 예사로 알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인간성의 타락인 것 같았다. 민영심은 몹시 외로웠다. (중략) 감정이 외로워 올수록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박기철 뿐이어서 (181)

가부장제 규율에 따라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억압할 뿐 아니라 권모술수와 인공유산이 횡행하는 당대 사회에서 고독하게 신의와 진실을 지키는 존재로 자부한다. 그녀에게 있어 인공유산을 요구하는 안혜옥이나 권모술수를 부리는 이상태, 박재호는 모두 진실하지 못한 부도덕한 존재이다. 스스로를 그들과 다른 진실한 존재, 기성 윤리에 순응하는 존재로 부각하면서 그녀는 역설적으로 유부남인 박기철에게 접근하는데, 이는 첫사랑 박기철을 아버지나 남편과 같은 윤리적인 가부장으로 발견하는 까닭이다. “간호원에게 해피한 의심을 받거나 말거나 젊은 의사들에게 백안시를 당하거나 말거나,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오직 그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모든 핍박과 모든 모략을 능히 이겨나갈 것만 같았다.”(167) 서사에서 민영심의 첫사랑이자 변호사인 중년남성 박기철은 공고한 가부장의 윤리를 대변하는 존재이자 금기의 목소리이다. 그는 아내와 민영심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끝까지 민영심과 불의의 관계를 맺지 않을 뿐 아니라 그녀의 발작적인 요구 앞에서도 윤리적인 포즈를 허물지 않는다.

아내 있는 내가, 사랑해서는 안될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은 중

대한 정신적인 과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475)

부인이 있거나 말거나 저는 저대로 박기철을 그리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나의 생명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정신적인 갈망을 감히 무슨 힘으로 막아낼 수 있으리란 말인가.(477)

박기철은 부정한 욕망을 비판하며 유부남인 자신이 민영심을 사랑하는 것도 과오라고 자책하는 등 엄격한 윤리를 연행한다. 이러한 박기철의 모습에 민영심 또한 표면으로 윤리적인 포즈를 취하지만 욕망의 절대성을 떠올리며 비판적인 인식을 보이기도 한다. “비록 나중에는 몸을 망치는 유한이 있더라도 미치도록 사랑해 주지 않는 것이 밭살머리스럽도록 불만이었다.”(200) 민영심의 윤리적 위장, 즉 법질서와 기성 윤리를 따르는 교양 있는 미망인의 위장은 서사에서 안혜옥의 운명과 등치되는 가운데 허물어지며, 거침없이 (동물적인) 욕망을 표출하며 가부장제 윤리를 위반하고 파괴하는 광기와 폭력으로 변화해간다. 결혼 경험이 있음을 알고도 안혜옥에게 거리낌 없이 열렬한 애정을 표현하는 배인곤의 모습을 보며, 민영심은 박기철이 취하는 윤리적인 자세에 불만을 갖는다. 욕망을 표출하지 못하는 암전한 미망인의 가면, 윤리적인 법조인의 가면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녀는 솟구치는 분노와 울분, 히스테리를 ‘무의식중에’ ‘대담하게’ 드러낸다. 박기철은 이러한 민영심의 존재와 행동에 공포를 느낀다. “『영심씨를 만나니까 어쩐지 겁이 나서 못 견디겠군요요』”(189) 그녀의 히스테리, 발작적인 성욕과 남성에 대한 무의식적 접근 같은 행위는 가부장제 남성의 세계를 위협한다.

가부장제의 규율을 따르는 착한 여성이라는 민영심의 가면 아래에는 남성과의 접촉과 성관계의 욕망, 남성의 육체를 휘감고 깨무는 광기가 자리한다.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에 따르면 가부장제 사회에서 히스테리는 여성의 욕망을 비정상적으로 몰아 통제하는 수단인 동시에 남성의 언어(로고스)로 말하지 못하는 여성의 욕망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¹⁰⁾

아버지의 법, 가부장제 질서에 집착하는 민영심은 윤리적인 가면 때문에 내면의 욕망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하고 욕망을 느낄 때마다 죄의식, 비애와 슬픔을 과장하며 광기와 히스테리를 나타낸다.¹⁷⁾

압력-민영심여사는 지금 그 무엇인가 가위놀리는 듯한 압력감에 호흡이 야릇하게 가빠왔다. 감은 눈 앞에 남편 얼굴이 얼른거려 보이며 깨닫지 못한 사이에 전신에 줄기 기퍼져오는 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바야흐로 황홀한 감각에 도취 되려는 바로 그순간 (중략) 열병환자처럼 입술이 타며, 몸이 확확 달아 올랐다. (99-101)

1950년대 정비석의 신문연재소설에서 전쟁미망인의 욕망은 자위행위와 접촉 히스테리로 묘사되곤 한다. 『여성전선』의 한보영이나 『유혹의 강』의 최선애, 『세기의 종』의 민영심은 모두 표면으로는 얌전하고 현숙한 과부를 연행하지만 밤의 침실에서 남편의 육체를 연상하며 자위를 하거나 다른 남성과의 접촉을 생각하며 광기, 히스테리 상태가 되어버린다. 남편의 서재란 민영심에게 봉건 윤리를 강요하는 억압의 장소인 동시에 남편의 애무와 댄스를 떠올리게 하는 환락의 장소이다. 민영심은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육체 접촉에 대한 강한 갈망을 비애로 표출한다. 그것은 특히 폭력적인 욕망으로 이어지는 바, 민영심의 황홀한 도취는 그녀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위험한 환희이다.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 여자들은 이래서 바람이 나는가 싶기도 하였다.”(102) 그녀의 욕망은 열병환자처럼 달아오르며 이성이나 교양의 위장을 벗어나 금기를 위반하는 충동으로 나아간다. 표면으로 얌전하고 윤리적인 지식인 미망인의 비애를 연행하지만 비애의 이면에서 금기에 대한 위반 욕망, 타락과 과멸을

16)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엄양선·윤명숙 역, 『히스테리』, 여이연, 2003, 58-78면 참고.

17) 일레인 쇼왈터에 따르면 히스테리는 가부장제에 갇힌 여성의 심리적 저항인 동시에 자학적인 반항의 한 형태이다. 김경희, 「히스테리 담론'들과 담론적 수행성」, 『여성연구논집』 24, 신라대학교여성문제연구소, 2013, 166면 참고.

향한 욕망을 서슴없이 노출하는 광기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 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댄스에 대해 이상 야릇한 흥분이 자꾸만 느껴짐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전에는 그렇게나 좋아하던 춤을, 이미 이태 동안이나 한번도 못 추었기 때문에, 댄스의 유혹은 피부에까지 속속드리 파고 드는 것만 같았다. (중략) 자기 자신도 그들의 몸에 끼어서 남자의 몸에 안겨 스텝을 밟으며 돌아가는 환영속에 망연히 도취되어 있었다.(42)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이상야릇한 흥분’에 대한 도취, 금기된 것이기에 ‘피부에까지 속속드리 파고드는 것만 같’은 ‘댄스의 유혹’이란 남성에게 대한 접촉의 유혹이며 윤리 파괴의 욕망이다. “민영심은 박기철의 손을 조심히 붙잡았다. 어찌저 죄악을 범하는 것 같이 마음이 떨렸다.”(58) 그녀의 욕망은 끊임없이 죄의식, 죄악감을 불러 일으킨다. 과잉된 죄의식과 그에 상응하는 위반 욕망 가운데 그녀는 미칠 듯한 충동과 히스테리에 사로잡힌다. “자꾸만 마음이 끌려지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오래간만에 모든 시름을 잊어 버리고 미치도록 춤을 추어보고 싶은 충동이 절실하였다.”(43) 표면적인 윤리의 위장이 공고하면 할수록 이면적인 욕망과 충동 또한 크며 이면적인 욕망의 세계가 압도할 때 그녀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발작하듯 배인곤이나 이상태와 (남성에게 대한 강간처럼 묘사되는) 광기어린 성행위를 나눈다.

서사에서 민영심의 욕망은 무의식적 충동, 광기, 기절, 가위눌림, 접촉에의 열병 등으로 서사화한다. 민영심은 박기철, 배인곤, 이상태 등에게 무의식중에 접근해 그 육체와 접촉, 점령하기를 반복한다.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불행에 슬피하면서도 어느 순간 ‘무의식중에’ ‘정신없이’ ‘어쩔 수 없이’ 남성과 접촉하고 성관계를 갖는다. 그 행위는 그녀에게 황홀, 도취와 함께 죄의식, 슬픔, 절망과 발광을 동반한다. “박기철이가 눈앞에 있

다면 고주가 되도록 술을 마시고 지랄발광이라도 부리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이다.”(335) 그녀는 박기철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자 발광하듯 분노하고 배인곤이나 이상태와 발작적인 성관계를 맺는 등 좌충우돌한다. 남성을 유혹하는 그녀의 말이나 행동은 활발하고 솔직한 안혜옥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대신 슬픔과 고독을 연행하고 암전함으로 무장한 채 발작적으로 “부아가 나서”(186) “울화가 왈각 치밀어 올라서”(186) 깨물고 정복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그녀의 발작, 발광과 히스테리는 남성에게 대한 폭력적인 접촉, 정복과 이후의 죄의식과 후회로 반복된다.

그리고 상반신을 일으키려 하는 순간- 민영심은 눈을 감은채 무의식중에 배인곤의 목을 힘차게 껴안았다. (중략) 후 후 느껴올면서 사나이의 뺨을 깨물고 입술을 깨물었다. 구렁이 같이 몸을 굽들거리며 사나이에게 마구 감겨들었다.

오래 감금 되었던 무르익은 육체는 이제 매춘부처럼 완전히 해방 되었던 것이다.(367-368)

울분의 발작으로 박기철에게 행패를 부리고 돌아와서는 배인곤을 상대로 강제로 댄스를 하다가 눈물을 쏟고 주정 끝에 ‘무의식중에’ 그녀는 배인곤에게 성행위를 강요함으로써 그간 지켜온 미망인의 정조를 파괴한다. 남편의 제자이자 미혼 청년 배인곤을 상대로 욕망을 발작적으로 표출하며 그녀는 “이미 교양있는 여자의사가 아니라, 육체의 노예로서의 인간본연의 계집”(365)으로 자유를 획득한다. 그는 자신을 밀어내는 배인곤을 ‘구렁이 같이’ 감아버리고 깨물고 정복한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가부장제 윤리를 조롱하는 안혜옥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자기 자신이 안혜옥이라는 착각조차 느껴졌다.”(363) 결혼, 낙태 경험이 있는 안혜옥이 아무런 사회적 제약 없이 향락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녀는 안혜옥과 자신을 동일시한

채 교양이나 윤리의 탈을 벗어던지고 자유를 향락하는 것이다.

문제는 향락의 순간이 지나간 후 그녀가 다시 교양과 윤리의 가면을 쓰고 후회를 반복한다는 데 있다. 윤리와 교양의 자리에서 가부장제의 목소리를 빌어 내면의 욕망을 혐오하며 스스로를 “미친년! 화냥년!”(413)으로 비난하지만 이러한 혐오나 비난은 오래가지 않는다. 가부장제 윤리에 따라 자신의 몸을 정화하기 위해 “세상 관계를 일체 끊어버리고 수도여승처럼 외롭게 살아가다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416)지만, 욕망을 느끼는 존재로서 이는 불가능하며 “도저히 수도여승이 될 수 없는 자신이 눈물겨웁도록 애처롭게 여겨졌다.”(417) 즉 그녀는 가부장제 윤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죄의식에 눈물 흘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큼 강하게 금기를 위반하고 욕망의 향유를 향해 폭주한다.

사랑하는 남성이 아니라 아무런 감정을 갖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았던 남성들과 발작적으로 관계를 맺는 점에서 민영심은 안혜옥보다 위험한 존재이다. 봉건적인 윤리의 억압 가운데 스스로를 애수어린 존재로 발견하지만 실제로 그녀가 나타내는 행위는 접촉 히스테리를 구현하는 폭력으로 이루어진다. 슬픔이라는 표면 아래 발작적인 성욕과 폭력적인 육체의 유혹을 전시하는 것이다. 그녀가 정말로 기성윤리에 따르는 존재라면 첫사랑 박기철과의 영원한 그리움, 연모에 머물러야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대범하게 육체적 충동에 따르며 폭력적으로 남성의 육체를 점령하고 가부장제 질서를 파괴하는 음험한 향락, 주이상스를 구현한다.¹⁸⁾ 주이상스는 법 같은 상징질서(상징계)를 교란시키는 충동으로,¹⁹⁾ 상징계

18) 라캉은 생명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얻어지는 온건한 쾌감(pleasure)과 대비해,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지향하며 주체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자극과 흥분을 주는 충동을 과도한 쾌락·주이상스(jouissance)라 설명한다. 주이상스는 상징계로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가진 인간이 몸으로 체험하는, 결코 언어화될 수 없는 느낌, 정동, 감정의 면을 강조한다. 조현준, 「라캉의 주이상스」, 『인문학연구』 10, 경희대 인문학연구소, 2006, 123면.

19) 라캉은 〈안티고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편적인 ‘남자’의 법에 억눌려 말해지지 않았던 ‘여자’의 순수한 욕망과 충동을 의미화하며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욕망, 충동이란 본질적인 타

가 부과한 쾌락원리를 넘어, 금지된 향유를 즐기려는 죽음충동과 관계하며 흥분의 방출을 통해 원초적 만족을 반복하는 강박으로 나타난다.²⁰⁾ 〈세기의 중〉에서 월북미망인 안혜옥의 욕망이 가부장제 윤리에 대한 조롱과 비판을 통해 배인곤과의 결혼으로 나아간다면, 납치미망인 민영심의 욕망은 남성의 육체에 대한 과도한 충동 가운데 가부장제 윤리에 대한 파괴와 폭력을 동반한 채 죽음으로 이어지는 향락을 지향한다.

민영심은 아직도 박기철의 품에 안긴채 사내의 얼굴을 실신한 사람처럼 잠시 멀거니 바라 보았다. 그리다가 다음 순간,

『아!』

하고 슬픈 외마디를 부르짖으며 앞으로 폭 쓸어졌다.(56)

소설에서 민영심은 남성과의 육체 접촉이 있을 때마다 취한 채 기절하거나 향락의 환상 가운데 정신을 잃는데, 이 쓰러짐과 기절은 그녀의 욕망이 과도한 쾌락, 주이상스로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욕망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성과 접촉하고 맹렬하게 댄스를 하는 순간에 그녀는 압전한 미망인의 윤리를 벗어나 자유롭게 도취된 향락을 즐기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에게 욕망에 대한 추구는 스스로 사회적, 개인적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향락이지만 그럼에도 성관계를 향한 동물적인 욕망을 멈출 수 없기에 그녀는 발작적으로 성욕을 발산하고 죄의식에 후회하기를 반복한다. 이처럼 민영심에게 욕망의 향유는 광기 속에 흐느끼며 남성의 육체를 뺨처럼 휘어 감고 점령하는 성행위로 향한다. 자유로운 유혹자로서 누구에게나 위태로운 듯 보였던 안혜옥이 서사의 끝까지 사랑하는 남성 배인곤에게만 접근할 뿐 그 어떤 남성과도 관계를 나누지 않는 반면, 표면으로

자성의 인식을 통해 상징계의 질서로부터 분리된다고 본다. 김미연, 「주이상스: 남성의 쾌락을 넘어서」,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 여이연, 2003, 180-191면 참고
20) 김석, 『에크라-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출판사, 2007, 243-245면 참고

가부장제 윤리와 교양을 연행하는 민영심은 동물적인 욕망으로 남성들을 절명하고 죄의식으로 괴로워하기를 반복하다 죽음으로 나아간다. 안전한 미망인의 윤리를 지키려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과도한 성욕이 그녀를 사로잡으며 관능에 몸부림치게 하는 것이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집 안에서 옆집의 성관계를 훑쳐보려고 담장과 다락으로 옮겨다니다 나동그라지는 등 그녀에게 관능적인 욕망의 충동은 과도한 집착으로 반복된다.

민영심은 이상태에게 반항하는 마음으로 술잔을 자꾸 들었다. 아무리 취해도 몸을 지켜나갈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531)

그러나 그것도 순간에 불과했을 뿐! 입술에 이성의 뜨거운 촉감을 느꼈을 때에는, 반항정신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중략) 팔 다리에 봄기운이 줄기줄기 솟구쳐 오르며, 육체의 요동은 굴레 벗은 말처럼 자유분방하였다. (535)

민영심의 육체는 기계처럼 작동해, 접촉만 하면 혐오하는 남성에게도 동물적인 욕망을 거침없이 표출한다. 그녀는 이상태의 유혹에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술에 취한 채 ‘줄기줄기 솟구쳐 오르’는 욕망에 ‘굴레 벗은 말처럼 자유분방’하게 관계를 맺고는 향락이 끝나자 죄의식과 후회를 반복한다. “민영심은 저도 모르게 사나이를 차버리며 앙칼지게 부르짖었다.”(536) 그녀는 자신의 광적인 욕망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기에 이를 금기시하지만 그 욕망의 밀도나 강도가 결코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은 채 죽음에 이른다. 어떤 점에서 서사의 마지막에 배인곤과 결혼하게 되는 안혜옥의 모습이 결국 가부장제의 규율에 순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상태와 결혼하는 대신 자살해 버리는 민영심의 모습은 가부장제의 규율을 위반하고 파괴하며 동물적인 향락, 주이상스를 지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성 윤리를 파괴하는 과잉된 욕망의 발산을 멈출 수 없기에 자살을 선택하는 그녀의 행위는 박기철

이 대변하는 가부장제 윤리와 금기에 대한 저항이며 원한어린 복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어떤 번민이 닥쳐 오든지 저는 끝끝내 참고 견딜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민영심씨도 동감이지리라 믿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만한 절조조차 못지키게 된다면 무슨 자궁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중략) 그 구절은 예리한 칼로 가슴을 폭 찌르는 것 보다도 더 한층 심각한 형벌 같았다. 마치 『너 같이 더러운 년은 차라리 죽어버려라!』하고 외치는 소리만 같았던 것이다.(544)

소설에서 민영심이 동물적인 욕망을 발산하고 육체를 개방해 갈수록 첫사랑 박기철의 윤리적 금기의 엄숙한 목소리 역시 강화된다. 민영심은 정신적인 사랑까지 부정하며 ‘인간으로서 그만한 절조를 지키기 위해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박기철의 편지가 자신에게 죽음을 강요한다고 느낀다. 이에 응하듯, 그녀는 표면으로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행하는 것처럼 이면에서는 가부장의 윤리에 저항하면서 죽어간다. 이 상태와의 재혼이라는 선택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박기철의 편지에 순응 또는 저항하듯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민영심의 자살은 표면으로는 부도덕한 자신을 처벌, 정화하고 박기철에 대한 정신적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는 포즈를 취하지만, 이면에서는 육체적 욕망과 향유의 절대성, 수도승 같은 삶의 불가능성과 죽음에까지 이르는 욕망의 힘을 보여준다. 그녀에게 자살은 그 자체로 강렬한 충동, 궁극적인 향락의 지점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자살도 또한 하나의 허영에 지내지 않았다. 더러워진 자기 자신을 미화하기 위한 허영이요, 박기철의 사랑을 영원히 독점하고자 하는 허영이었다.”(549) 자신을 미화하고 자신의 욕망과 원한을 영원히 기억에 남기는 행위로서 자살은 곧 성관계처럼 환희와 환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녀의 자살은 정신적인 사랑을 지

킨다는 표면 아래 육체의 향락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으로 이루어지며, 자살하는 순간 그녀는 환희와 환각 가운데 죽음충동을 성자의 법열로 치환한다. “여기까지 쓰자, 민영심은 눈물이 거침없이 흘러내리면서도, 전신에 이상한 법열(法悅)이 느껴졌다.”(550) 박기철이 주장하듯 육체적 향락을 금기하고 정신적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굳이 자살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그녀는 과잉된 육체적 향락을 위해서 죽는다고 할 수 있다. 박기철에 대한 정신적인 사모가 아니라 동물적인 욕망을 결코 억압할 수 없기에 그 욕망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자살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유서를 읽으며 도취된 환희 속에서 죽어간다. “그리고 유서를 읽는 동안에 자기 유서에 감정이 도취 되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유희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554) 독약을 먹어 ‘입에서는 허연 거품’을 물며 죽어가면서도 남성의 육체에 대한 접촉 욕망과 성욕에 몸부림치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죽음까지 이어지는 과잉된 쾌락, 주이상스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준다.

그런 절망감이 다시한번 솟아 오르자, 문득 전신에 이상한 충동이 느껴졌다. 최후로 육체의 욕망을 한번 누려보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솟구쳐 올랐던 것이다.

한번 그런 충동이 느껴지자, 그는 저도 모르게 몸부림을 쳤다. 성욕의 충동은 사지의 구석구석에 까지 줄기줄기 약동하였다. 미칠 것만 같이 강렬한 충동이었다. (중략) 그래도 만족할 수가 없기에 미칠 것만 같이 마음이 길길이 날뛰어지며, 입에서는 허연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 올랐고, 독기 오른 눈이 개개 풀리기 시작하였다. 불이 꺼지려는 순간에 찬란한 광채를 발휘 하듯이, 그것은 육체의 최후의 발광이었던지도 모른다.(556-557)

독약을 먹고 죽음의 자리에 누운 민영심을 사로잡는 것은 자신이 정신

적 사랑을 위해 죽는다는 숭고한 환각이 아니라 길길이 날뛰는 성욕이다. 그는 성욕에 몸부림치며 자위행위를 하면서 ‘육체의 최후의 발광’처럼 몸을 꼬고 “설령 이상태라도 상관없었고, 배인곤이라도 좋았다. 마지막으로 육체에 봉사하고 싶은 충동”(556) 가운데 ‘미칠 것만 같이 마음이 길길이 날뛰어지며’ ‘성욕의 충동은 사지의 구석구석에까지 줄기줄기 약동’하며 죽어간다. 그녀가 죽음의 순간까지 이성에 대한 포용을 갈구하며 자위행위 속에서 죽어간다는 사실은 미망인의 욕망을 금기하고 억압하는 가부장제 윤리의 불가능성, 비인간성을 환기한다. 최후까지 과잉된 육체의 욕망 가운데 죽어감으로써 그녀는 가부장제 윤리에 대한 원한어린 저항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설은 납치미망인 민영심의 죽음과 한양종합병원의 화재로 막을 내린다. 민영심의 죽음과 동시에 아버지가 세운 한양종합병원은 간호부 허정자의 방화로 불타버린다. 죽음으로까지 향하는 민영심의 주이상스는 남성의 육체를 깨물고 감아올리는 폭력으로 가부장제의 논리와 규율에 균열을 가한다는 점에서 허정자의 폭력과 상관성을 보인다. 민영심의 주이상스는 납치미망인의 과잉된 성욕을 펼쳐보임으로써 아버지로 대표되는 가부장제의 금기와 명령을 위반하며, 결국 아버지가 세운 병원을 파괴하는 폭력으로 이어진다. 이는 곧 민영심의 육체를 교환함으로써 남재호와 이상태 사이에 성립된 협잡의 과탄을 그리며 부정한 가부장의 욕망에 대한 폭력적인 처벌을 암시한다.

불! 요란스러운 불이었다. 한양종합병원의 거대한 양육이 완전히 불 속에 싸여, 불길은 하늘을 찌르며 맹열하고 화광은 서울장안을 낮같이 밝히고도 남음이 있었다. (중략) 주식회사 한양종합병원! 그것은 그들의 화려한 꿈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화려한 꿈은 지금 현실로서 맹렬하게 불에 타고 있었다. (578)

이상태와 남재호 두 부정한 가부장의 야합으로 성립된 주식회사 한양 종합병원이 불타버리는 결말은 그들을 처벌하는 동시에 병원 설립자인 민영심의 아버지를 처벌하는 의미를 갖는다. 민영심은 죽음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결혼을 강요했던 아버지와 자신에게 윤리를 강요하는 박기철에 저항한다. 또한 허정자는 한양종합병원에 불을 놓음으로써 여성을 농락하는 가부장 남재호와 이상태의 부정한 자본과 욕망을 처벌한다. 여성의 원한이 남성을 파멸케 하는 결말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세기의 중〉은 남성 가부장제 사회의 법적 규율과 질서에 이반하고 저항하는 여성의 욕망을 유의미하게 형상화한다고 하겠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정비석의 『세기의 중』에서 1950년대 초 월북/납치 미망인이란 예외상태의 주인공이 나타내는 유희와 욕망의 서사를 분석하고 가부장제 윤리에 대한 조롱과 처벌, 저항과 폭력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표면에서 납치미망인 민영심이 가부장제 윤리를 고수하며 고독과 비애 속에 살아가는 반면, 월북미망인 안혜옥은 자유로이 인생을 즐기며 여성의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면에서 안혜옥의 엔조이와 민영심의 주이상스는 모두 가부장제 사회 속 남성의 억압적이고 모순된 윤리를 위반하고 비판하며 저항하고 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민영심의 주이상스가 과잉된 성욕의 히스테리와 광기로 표출되면서 남성의 육체를 폭력적으로 점령하고 죽음까지 향하는 향락이라면, 안혜옥의 엔조이는 유희를 통해 남성의 욕망을 조롱하고 처벌하는 매저키즘의 면모를 보인다.

소설에서 윤리적인 가부장 박기철은 이러한 미망인의 유희와 욕망을 규제하고 비판하는 시선으로 자리한다. 이상태와 남재호 등 예외상태의 현실, 법적 아노미 상태 속 역설적으로 강화되는 규범의 효력을 이용해

사기와 협잡으로 자본을 축적하는 브로커 남성들과 달리 변호사 박기철은 정상적인 법질서와 가부장제의 윤리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이상태와 남재호 등 부정한 남성의 욕망이 안혜옥의 ‘애정 사기’와 허정자의 방화 폭력으로 처벌되는 것이라면, 박기철의 엄숙한 윤리는 민영심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향락을 긍정하는 장선희의 향변을 통해 비판된다. 민영심의 옆집에 사는 중년여성 장선희는 유부녀도 미망인도 독신녀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브로커로서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으며 어느 누구의 비난에 구애받지 않고 향락을 누리는 인물이다. 장선희의 자유로움은 배인곤과의 결혼으로 나아가는 안혜옥이나 금기를 위반하는 과잉된 욕망으로 죽어가는 민영심과 달리 결혼을 거부하며, 죽음 앞에서 가부장제의 금기나 윤리는 무의미하다는 예외상태의 향락을 대변한다. “나는 욕이오 때에 절실히 깨달은 일인데, 사람이란 괜히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살아 있을 때에 마음껏 춤도 추고 즐겁게 놀기도 해야겠더군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에서 괜히 꼼질 거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 했어요.”(40) 전쟁기의 예외상태에서 장선희는 법질서나 가부장제의 윤리를 초월해 개인적 향락을 추구한다. 타인의 시선에 주눅 들지 않고 마음껏 환락을 즐기는 장선희의 태도를 민영심은 지식인의 자리에서 “나라가 망하거나 민족이 망하거나 목숨이 붙어있는 최후의 순간까지 개인의 향락만 누리려는 퇴폐한 사상- 그런 사상이야말로 공산주의 보다도 더 무서운 사상”(41)이라고 비판하지만 가부장제의 억압에 대한 원한과 저항 가운데 그녀 역시 이러한 향락에 동화해 간다.

장선희는 사실 질투를 모르는 여성이었다. 모든 남성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는 대신에, 어느 남성에게서나 구속을 밟으려고 하지 않았다. 누구 하고나 기분만 맞으면 대담하게 몸을 해방하지만, 그 시간만 지나면 모두가 그만이었다.(206)

장선희는 기분과 필요에 따라 어떤 남성과도 ‘일종의 외입’으로, 다시 말해 법이나 윤리를 벗어난 관계를 맺지만 그것은 구속으로 이어지지도 질투를 자아내지도 않는다. 그녀는 욕망을 금기시하지도 욕망에 집착하지도 않는 자유로움을 구현한다. 특유의 정보력으로 위선을 떠는 가부장의 이면을 폭로하고 조롱하는 장선희는 남성들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지만 결코 자신의 주체성을 놓지 않으며 유혹의 대상이 아니라 유혹의 주체로서 자리한다. 이런 점에서 장선희는 남성의 욕망에 대한 유혹과 조롱, 처벌을 수행하는 안혜옥과 유사한 면모를 나타내는 동시에 민영심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주이상스를 긍정하고 박기철의 윤리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유린이라면 반드시 구두발로 짓밟아야만 유린인줄 아세요? 자기한테 애정을 품고 있는줄 변연히 알면서, 이러니 저러니 되지 않는 구실로 그 애정을 무시하는 것은 구두발로 짓밟아 주는 이상으로 가혹한 유린이란 걸 아셔야해요! (중략) 민여사가 자살한 것은 박변호사의 위선에 대한 무언의 반항이었다고 나는 생각해요!』(중략)

『박변호사는 신의라거나 도덕 같은 것을 생각해서 사랑에 있어서도 신사로서의 예의 범절을 지키려고 그런 태도를 취하셨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요구하는 사랑이란 그런 얼간치기가 아니에요. 사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불 같은 열과 결사적인 심각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박선생처럼 중학교 훈육시간에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교훈적인 사랑은 선량한 여자들의 생명을 빼앗을 뿐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여자들을 타락시킬 뿐이에요! 민영심 여사야말로 그의 좋은 표본이 아니고 뭐겠어요?』(565-566)

장선희는 민영심의 자살이 가부장제 윤리의 억압에 대한 저항이자 박기철의 위선에 대한 ‘무언의 반항’임을 지적하고 박기철의 윤리적 포즈를 ‘중학교 훈육 시간에나 통용될 수 있는’ 얼치기 태도라고 비판한다. 민영

심의 자살은 사실상 자신의 과잉된 성욕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윤리를 강요하는 가부장제의 위선에 대한 저항이자 처벌이다. 박기철에 대한 장선희의 공박은 가부장제의 윤리가 육체적 욕망을 저열한 것으로 몰아가 역설적으로 여성을 타락시키거나 죽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것임을 주장한다. 미망인의 욕망을 죄악시하고 육체적 향락을 억압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금기에 대해 민영심은 죽음으로 저항하며 안혜옥과 장선희는 자유롭게 온갖 남성을 유혹함으로써 조롱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남성을 유혹하는 동시에 그 저열함을 조롱하고 처벌하는 율복미망인 안혜옥, 가부장제의 금기에 순응하는 포즈 이면에서 강렬하고 과잉된 욕망을 향유하며 죽어가는 납치미망인 민영심, 온갖 윤리 너머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여성브로커 장선희 등은 50년대 초 전쟁기의 법적 예외상태의 현실 속 과잉 규범의 논리를 조롱하는 동시에 정상상태의 법질서에 저항하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윤리나 규범을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발랄하게 전시하고 기꺼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향락을 추구해 보인다. 소설에서 이들 미망인의 욕망이 반복되고 과잉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세기의 중』이 전시입법의 예외상태, 정상상태의 규범과 법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예외상태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과 결부된다. 정상적인 법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창출되는 법적 아노미 공간 속에서 그들은 남성 브로커들이 나타내는 부정적인 규범의 효력을 비판하는 동시에 정상상태의 법질서를 전복하는 가치와 태도를 구현한다. 가부장제의 규율 질서가 빨갱이의 호명이나 비상시국의 통제령 속에서 흔들리며, 모자보건이나 아동보호의 논리가 부랑아, 고아가 넘쳐나고 불법 낙태수술이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무의미해지는 전쟁기의 예외상태가 가로놓임으로써, 남성 가부장제의 법적 규범이나 윤리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여성의 서사, 가부장제를 심문하는 서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후 재건의 일상이 재현되는 1950년대 중반 이후, 육체접촉을

향한 과잉된 욕망과 자유로운 향락으로 가부장제 사회의 윤리와 질서를 위반하고 저항하는 여성의 모습은 정비석 소설에서 긍정적인 의미망을 서서히 상실해간다. 『슬픈 목가』나 『유혹의 강』 등 50년대 중반 이후 소설에서 (월북/납치)미망인은 재건 가부장제 사회의 현실을 투영해 해소되지 않는 욕망 앞에서 몸부림치다 가족으로 복귀하거나 육체적 일탈을 죽음으로 처벌받는다. 이들 소설에서 미망인을 유혹하는 남성은 어떤 비난이나 처벌도 받지 않으며 일탈의 처벌은 오로지 미망인에게만 주어진다. 반면 『세기의 중』에서 처벌되는 것은 (부정하고 모순된) 남성의 욕망이며, 미망인은 자유로운 유혹으로 남성의 욕망을 조종하거나 개인적 향락을 즐기고 과잉된 욕망으로 가부장제의 금기를 위반하고 억압에 저항한다. 이처럼 『세기의 중』은 전쟁기 예외상태의 현실 속 법질서나 윤리 너머의 여성적 욕망과 자유를 투영한 소설이라 할 것이다. 『세기의 중』과 대별해 1950년대 전후 재건 사회 속 미망인의 욕망과 운명에 대한 서사가 가진 의미를 밝히는 작업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정비석, 『여성전선』, 한국출판사, 1952.
정비석, 『세기의 종』, 세문사, 1954.
정비석, 『민주어족』, 정음사, 1955.

2. 단행본

- 김석, 『에크리-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출판사, 2007.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조르조 아감벤, 김항 역, 『예외상태』, 새물결, 2009.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엄양산·윤명숙 역, 『히스테리』, 여이연, 2003.
들뢰즈, 이강훈 역, 『매저키즘』, 인간사랑, 1996.

3. 논문

- 김경희, 「히스테리 담론'들'과 담론적 수행성」, 『여성연구논집』 24, 신라대학교여성문
재연구소, 2013, 159-174면.
김은하, 「전후 국가근대화 와 위험한 미망인의 문화정치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9,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177-209면.
김주리, 「1950년대 혐오의 서사와 헤테로토피아의 기획-정비석의 〈민주어족〉 고찰」,
『인문논총』 78,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293-327면.
김태진, 「전후의 풍속과 전쟁미망인의 서사 재현 양상」, 『현대소설연구』 27, 한국현대
소설학회, 2005, 83-105면.
나보령, 「1950년대 '직업여성' 담론을 통해 본 여성들의 일과 결혼」, 『한국문학과 예술』
23, 숭실대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7, 319-353면.
서재원, 「박경리 초기 소설의 여성 가장 연구-전쟁미망인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문
학이론과 비평』 5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151-167면.
양창렬, 「생명권력인가 생명정치적 주권권력인가」, 『문학과 사회』 19권 3호, 문학과
지성사, 2006, 238-254면.
이명호, 「히스테리적 육체, 몸으로 글쓰기」, 『여성과 사회』 15, 한국여성연구소, 2004,
9-21면.

- 이상화, 「전쟁기의 여성 젠더 의식-정비석의 『세기의 종』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6, 대중서사학회, 2011, 205-228면.
- 정보람, 「전쟁의 시대, 생존의지의 문학적 체현」, 『현대소설연구』 49,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327-356면.
- 정보람, 「탕녀와 가장-1950년대 전쟁미망인의 이중적 표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229-262면.
- 조현준, 「라캉의 주이상스」, 『인문학연구』 10, 경희대 인문학연구소, 2006, 117-145면.
- 허윤, 「한국 전쟁과 히스테리의 전유」, 『여성문학연구』 2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93-124면.
- 허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 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2015.

<Abstract>

The narrative of a widow's desire at a state of exception and <A bell of the century>

Kim, Jue-lee

<A bell of the century> by Bi-seok Jeong raises the issues of survivor, desire and moral of widows who's husbands being taken away/ going to North Korea at the time of Korean war, as a state of exception.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meaning of a woman's desire and its revelation centering around the widows's lot. Hae-ok An, a widow who's husband going to North Korea, is a woman of temptation so she makes a complaint against the inconsistency of the patriarch society with logic of enjoyment. She ridicules and punishes a man's inconsistent, vulgar desire with her liberal temptation so she embodies Masochism which upset the patriarchy system. Besides Hae-ok An, Yeong-sim Min, a widow who's husband being taken away, emphasizes her education and moral at the outside but she express a desire for violation about the patriarch taboo with madness and hysteria at the inside. She forcibly occupies a man's body and express jouissance, a dangerous possession which destroy the patriarch rules. The aspect of women who violate and criticize the rule and system of the patriarch society with her excessive desire and liberal temptation goes to lose its positive meaning in the novel by Bi-seok jeong after the middle 1950s. <A bell of the century> is a positive value as a novel which show women desire and liberality beyond the law and morals at the time of Korean war, as a state of exception.

Key words: Bi-seok Jeong, <A bell of the century>, Masochism, Hysteria, jouissance, A state of exception

투 고 일: 2021년 11월 25일

심 사 일: 2021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12월 23일